

포장신문 주최

통산부·환경부 국장 초청간담회

포장산업 정책방향과 환경대책 논의

지난 4월4일 오전 7시 '한국 포장신문' 주최의 포장인 조찬간담회가 라마다르네상스 다이아몬드 볼룸에서 60여 포장인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사로 통상산업부의 오강현 산업정책국장 과 환경부의 정국연 폐기물자원국장이 참여했으며 오국장은 통산부에서 벌이고 있는 포장산업의 정책방향을, 정국장은 쓰레기증량제 실시이후의 포장산업의 대응에 대해 강연했다.

포장산업측은 조찬회 개최의 의의에 대해 "그간 포장업계의 규모와 내용에 비해 조찬회 등 전체 포장인의 우의를 다지고 발전적인 논의를 하는 모임이 적었으며, 특히 조찬회 형식의 모임은 전무"였다고 하면서 "금번 조찬회를 계기로 분기별 회정도의 이외같은 모임을 정례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찬회에서는 연사들의 기초발언이 끝나고 그동안 정부의 정책에 대해 궁금했던 사항과 포장인의 입장에서 잘못 되어가고 있는 정책에 대한 질의와 시정을 요구하는 질의응답이 활발하게 진행되기도 했다.

포장산업에 대한 정책 방향

- 통상산업부 산업정책국장/오강현

1. 포장산업의 중요성

포장산업이란 지류와 합성수지 등의 포장재료 및 포장기계 등의 제조업과 포장설계, 디자인, 물류 등을 포함한 산업이라고 정의하고 60년대식 단순한 짐꾸리기라는 포장에 대한 인식에서 현재는 상품의 얼굴로서의 포장, 상품판매 촉진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포장이라는 인식이 사회전반에 팽배해 있어 그 어느때 보다 포장의 중요성은 강조

되고 있다.

이런 포장의 전체적인 상품 구매욕구의 증가를 촉진시키는 것과 함께 물류비의 증가를 포장의 규격화로 절약하는 기능도 해야 한다고 한다. 즉 상품의 유통 등 물류합리화의 핵심부위에 포장은 존재한다. 따라서 포장이란 생산의 종점인 동시에 물류의 시발점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그 뿐 아니라 제조업과 디자인 및 서비스 등 복합적인 현대의 과학기술인 포장의 재료, 제조-가공기계 및 설계, 디자인 등이 응용되고 있는 응용산업이다.

그리고 현대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환경문제와 가장 밀접한 연관을 가진 산업이기도하다. 이



▲ 지난 4월4일 한국포장신문 3주년 기념행사로 열린 제1회 포장인 조찬회 및 초청강연장 모습

[표1] 92. 포장재의 부문별 생산액

(단위:억원)

구분	종이·판지	합성수지	금속	유리용기	계
생산액(비중)	16,208(39)	15,065(37)	7,132(17)	2,809(7)	41,214

는 쓰레기종량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한 이후 포장에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재활용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으로 요약될 수 있다.

위와 같은 중요성을 갖는 포장산업은 국내에서 전반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중의 하나이다.

2. 포장산업의 현황

1) 포장산업의 국민경제적 지위

포장재 생산의 경우 92년도 시장 규모가 4조1,214억원으로 GNP의 1.8%에 달한다. 이를 품목별로 보면 종이 및 판지포장재가 39%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합성수지가 37%, 금속포장재가 17%, 유리용기가 7%를 차지한다. 종이 및 판지포장재 중에는 골판지 상자가 53%로 가장 많고 합성수지는 PE제품이 50%로서 절반을 차지하였으며, 금속포장재는 스틸캔이 66%로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 기술수준

국내 포장산업은 독자적인 기술개발보다는 발달한 일본, 유럽 등 외국의 포장산업의 모방과 선진기술을 국내 적용과 재생산을 통해 생산기술은 이미 상당수준에 도달해 있다. 또한 환경친화성 포장 등 신제품 개발부문은 전문기술인력과 연구개발 투자의 절대부족으로 자체 개발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으며 특히 필름류 등 가공업체의 시설이 대부분 낙후되어 있고, 포장기계의 경우 정밀

부품 등 핵심부품의 국내 기술이 낙후하기 때문에 수입에 의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부분 사업규모가 영세하고, 사세상 기술개발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기계류는 일본과 독일, 이탈리아 등의 제품을 모방하는 단계에 있다.

3) 포장기술교육

포장산업은 복합적인 기술이 연계되어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인데도 이를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기관이 없어 전문인력 양성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현재 국내 교육기관으로는 동국전문대, 신성전문대 등 국내 2개의 전문대학에서 포장과를 운영하고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그나마 각각 93년도와 95년도에 신설되어 충분한 교수진과 실습장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외에는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의 포장관리사 교육과 (사)물류관리협회의 물류관리사 교육 등의 보수 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부족한 실정이다.

4) 물류표준화

물류는 기업의 제3의 이윤원천으로 근래에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고있는 분야이다. 물류는 상품의 운송이라는 측면에서 포장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으며, 포장의 규격화는 물류의



▲ 오강현 통상산업부 국장

포장산업 분야의 기술개발 과제 발굴 강화 및 지원의 확대를 통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현재 [산업기술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충전-포장기기, 경량도공지 등 20개 내외의 포장산업 기술 분야가 기술개발지원 대상으로 도출되어 검증 작업중이다.

표준화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현재 국내산업은 물류표준화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불필요한 물류비를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국내 포장과 물류에 관한 KS규격은 총 261개에 달해 양적으로는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표준화 규격의 실제 보급은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

표준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하역시간단축, 수송적재용항상 등 물류효율화의 기본이 되는 단위화물 체계의 도입과 정착을 위해서는 포장의 규격화, 표준화가 선행결과제이지만 국내 상황은 대부분 KS규격을 사용하지 않고 독자적인 규격을 사용하여 포장하고 있기 때

문에 총261개에 달하는 KS규격은 거의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이는 상공회의소의 조사결과를 보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부분인데 포장에 있어서 KS규격을 사용하는 업체의 부로가 9.5%이며 포장의 기계화율도 10%수준으로 파악되어 그 심각성이 입증되고 있다.

또한 보관시설을 이용하는 제품중 일부 제품만이 수송용기와 하역단위가 팔레트나 컨테이너로 규격화되었으며 KS규격 일관수송용 표준팔레트인 T-11형(1100 X 1100mm)을 사용하는 기업이 전체 기업의 11%수준에 그치고 있다. 상공회의소의 조사결과와 하역기기 및 설비들중 KS규격은 10%를 약간 상회하고 하역작업의 기계화는 50%수준이며, 자동창고 보유업체는 12%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국내 수준은 외국과 비교해 무척 낙후한 실정이다. 현재 물류선진국의 경우 대형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집배송 단지까지 낭비없이 대량의 화물을 수송하고 있으며, 집배송단지에서는 제품의 이송양에 맞는 화물차를 이용하여 목적지 까지 완벽하게 운반하고 있어, 물류의 낭비를 줄일 뿐 아니라 도로의 이용율을 낮추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물류 현실은 복합집배송단지의 턱없는 부족과 대형컨테이너에 맞는 팔레트 풀 등의 규격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물류비용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물류를 위한 대형차들의 무분별한 운행은 도로의 이용율을 높여 도로의 파손과 교통의 혼잡까지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3. 포장산업을 둘러싼 여건의 변화

1) 국내의 경기의 회복

최근들어 몇년간 침체에 있던 석유화학업계가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특수에 힘입어 경기상승을 주도하고 있으며, 국내업체는 지난해 8.4%의 높은 신장세와 함께 신증설을 계속하고 있다.

현재 경제성장율은 GNP를 기준으로 할 때 93년 5.8%에서 94년 9.4%로 성장했으며, 제조업 성장율은 93년 5.0%에서 94년 10.4%로 설비투자 증가율은 93년 0.1%에서 23.3%로 상향되었다.

이는 90년대 들어 전반적으로 불황을 겪어온 포장산업도 94년들어 국내의 경기회복으로 수급불균형 상황의 완화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추세는 금년도에도 노후기계의 교체, 신소재의 개발에 따른 새로운 설비의 도입 및 포장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인식의 확산으로 지속될 전망이다.

2) 환경규제의 강화

최근 지구 환경문제가 제지됨에 따라 몬트리올 의정서 및 바젤협약 등 국제적인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도 쓰레기종량제 등의 실시에 따라 포장폐기물의 감량화 및 재활용을 위한 행정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에따라 적정포장 및 환경친화적인 포장설계의 중요성

이 부각되고 있는 추세이다.

3) WTO체제의 출범

세계 무역체제가 GATT체제에서 WTO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국내외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특히 95년 1월 WTO체제의 출범에 따른 세계 무역규모의 확대 및 고유농산물의 개발과 차별화를 위한 포장수요의 확대가 예상되지만 국내산업의 제반 보호조치에 대한 제약이 가해지고 있어 정책적인 보호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수입선 다변화제도, 각종 국산설비 보호조치 및 무역금융의 폐지가 불가피하여 정책적인 포장산업에 대한 배려는 실제로 어려운 상태이다. 특히 수입에 많이 의존하는 포장기계의 부품과 기술도입은 국내 포장업계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지만 전반적인 수요의 재창출이 있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등에 대한 수출로 극복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또한 내수시장의 고기능 제품 선호에 따라 고급품 시장에서 외제품에 의한 국산품 시장잠식도 예상되며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등 고급기술이 필요한 포장재료나 용기, 포장관련기기 및 핵심부품의 수입, 포장용역회사의 국내진출 등도 충분히 예상가능하며 이에 대한 대처가 전 업계에 요구되고 있다.

포장산업에 대한 정책 방향

(표2)

구 분	94년도	95년도
품 목	자동포장기 1개 품목	자동포장기, 자동결속기, 진공포장기, 기타포장기 등
금 액	8억원	총 16억원

(표3) 설비금융 지원실적 비교

구 분	외화대출	외화표시 원화자금
93	2조9천40억원(36.3억불)	4천5백억원
94	6조4천4백억원(80.5억불)	6천6백28억원

(표4) 지도사업 실적 및 계획

구 분	94년도 실적					
	소계	포장기술	포장디자인	소계	포장기술	포장디자인
*진 단	911	313	598	1,080	300	780
*지 도	533	152	381	700	200	500
*개 발	188	-	188	300	-	300
계	1,632	465	1,167	2,080	500	1,580

6. 포장산업에 대한 정책방향

포장산업에 대한 정책방향은 1) 포장산업의 기술집약화 및 자동화 표준화와 2) 독창적이고 우수한 포장상품의 개발 촉진 3) 포장기술 및 디자인 전문인력의 양성 4) 포장산업의 중요성인식 확산 및 진흥체제 구축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

1) 포장산업 기술개발 지원 확대

현재 정부에서 포장산업에 대한 지원금이라고 특별하게 책정하고 있는 것은 없다. 단지 94년 1,414억원에서 올해 1,888억원으로 증액한 공업기반기술개발자금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는 포장산업 분야의 기술개발 과제 발굴 강화 및 지원의 확대를 통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산업기술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충전-포장기기, 경량도공지 등 20개 내외의 포장산업 기술분야가 기술개발지원 대상으로 도출되어 검증 작업 중이다.

향후 최종 도출분야는 금년부터 5개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포장기계 시제품개발 자금지원도

있는데 기계류·부품·소재 국산화 지원계획으로는 국산화대상 품목의 발굴 및 고시로 95년 800여 품목이 있으며, 공업발전기금은 93년에 비해 약 200억원이 증가한 1,200억원이 책정되어 있다. 정부에서는 포장기기 분야의 지원을 계속 확대할 예정에 있다.

2) 포장공정 자동화 시설 투자의 적극 지원

자동공급, 자동케이싱, 자동펠리트 등 자동화 시설투자 확대를 적극 유도하며, 외화표시 국산설비자금의 지속적 공급도 확대하고 활성화를 위해 제도도 개선할 예정이다. 즉 외화표시 국산설비자금의 확대는 94년도 외화대출은 6조 4천억원 수준이나 외화표시 국산기계구입 자금은 6천6백억원으로 외화대출의 1/10수준에 불과하므로 이를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 서있다고 한다. 그러나 외화대출은 자금이 해외로 지급되어 통화에 부담이 없으나 외화표시 자금은 외화자금이 국내에 풀려 물가 및 통화에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어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수적이다.



▲ 정국삼 환경부 폐기물정책 국장

금년 상반기중 합성수지재 포장재 및 완충재의 감량화지침을 통상산업부와 협의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이는 식품류, 잡화류, 종합제품의 합성수지 포장재와 가전제품에 사용하는 포장용 합성수지 재질의 완충재가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현행 식품류, 잡화류, 종합제품에 한정되어 있는 포장공간 비율 및 포장횟수 규제대상의 확대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또한 국산 시설재자금과 외산 시설재자금의 단계적 통합을 통한 국산기계 수요자금용의 확대방안도 강구 중이다.

94년 8.3조원이던 국산기계 구입자금 및 자동화설비자금을 95년에 9.4조원으로 늘리는 등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속적인 확대를 추진 중이다.

3) 포장기술 및 포장디자인 (지도사업)의 강화

중소기업 현장애로의 진단에서 부터 지도, 개발 및 상품화까지 일괄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94년 3천1백73건에서 95년 3천5백건으로 자금

은 29억원에서 53억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현재 포장폐기물 감량화와 식품포장, 포장라인자동화 등을 대상으로 한 포장기술지도 강화도 계획하고 있으며 지원실적 및 계획은 95년 5백건이며, 치약부문을 대상으로한 국제전문가 진단지도도 95년 10명내외로 지난해의 3명에서 대폭 확대되었다.

전통식품 및 농수산물을 대상으로한 포장디자인 지도, 개발강화도 계획하고 있다. 지원실적 및 계획은 95년 1천5백80건, 국내전문가 4백명, 외국인 1백30명 등 총5백30명의 [전문가 Pool]을 적극 활용할 것이다.

4) 포장기술 및 디자인 전문인력의 양성

현재 2개교에 불과한 전문인 양성 학교를 교육부와 협조하여 (전문)대학에 포장관련 학과를 설치토록 적극 유도토록 한다. 그리고 노동부 및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직업훈련원에 포장학과를 설치토록 유도하고 [산업기술대학]설립시 포장학과 설립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현재 시범기술대학의 학사 및 교과과정 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연구 수행중이며, 일차적으로 98년 개교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중이다.

현재 전문인 양성과정 중 하나인 산업디자인 포장개발원의 [포장관리사]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포장기술과 포장디자인의 접목을 유도하고, 포장실험실의 활성화 및 포장시험기계를 확충한다. 또한 포장기술 국제전문가의 초청을 통한 세미나 확대를 실시한다.

또한 포장기술 및 디자인 전문인력 해외연수를 확대할 것이다. 즉

포장의 선진국이라고 이야기 하는 EC, 미국, 일본 등에 적극적으로 파견하고, 기간도 3개월 ~ 1년으로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 지도록 할 것이다. 또한 연수인원도 94년 11명에서 95년 50명으로 대폭확대한다.

5)물류정보화 표준화 자동화의 확산

일관수송체계의 구축을 위해 Unit Load System과 일관 팔레트화를 추진할 것이다. 일관 팔레트화의 정착을 위해서 표준팔레트(T-11형) 도입시 세제, 금융지원을 제공하고 표준팔레트 사용화물의 운송, 보관, 하역시 우대요금 적용을 추진중이다. 업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일관 팔레트화의 효과적인 확산을 위해서 팔레트를 공동사용하는 "팔레트 Pool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다.

물류정보화 및 표준화의 촉진방안으로 제조, 유통업체의 바코드 및 POS도입 실태를 조사하여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도입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또한 전자문서교환(EDI)시스템 및 유통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의 물류표준화와 자동화, 공동화 지원사업은 물류표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판매업자 및 제조업자에 대하여 표준장비를 사용하거나 포장의 규격화 등과 물류자동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고 판매업자간, 제조업자간, 판매업자와 제조업자간의 공동집하, 공동집배송 시설의 공동이용 등의 물류공동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물류분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96년 예산에서 기업의 물류분야 투자를 지원하기 위

한 "유통근대화 재정자금"의 대폭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6) 포장산업진흥체제의 구축

우수포장 상품 및 우수포장 개발 성공사례전 등 전시행사의 개최를 통한 포장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한다. 또한 KOTRA, 무역협회 등과의 협조를 통해 해외 전문 전시회의 공동참가 및 이에 대한 지원을 별도로 강구하고 있으며 이는 포장산업의 세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통상산업부, 공업진흥청,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및 각 단체, 협회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방안을 강구하고 필요시 국내 포장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외국과의 경쟁력 비교등을 통해, 포장산업의 실태조사도 공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5. 맺음말

WTO체제는 세계를 국경없는 무역전쟁의 시대로 만들어 가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체제와는 달리 체급 제한도 없는 하나의 시장으로 세계 경제를 형성시켜 나가고 있다. 국내 산업은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당장 눈앞의 이익만을 집착하는 기업 운영으로는 살아 남을 수 없으며 오직 기술과 품질, 디자인에서 경쟁력을 갖추었을 때, 세계에서 최고의 제품을 만들었을 때만이 세계시장에서 성장해 갈 수 있다. 세계시장에서 2등이란 없다.

WTO체제는 정부도 개별산업 육성을 위한 직접적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술개발,

인력, 입지 등 간접적인 지원으로의 전환이 불가피 할 뿐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간접적인 지원도 특정성의 배제를 위해 산업 전체적인 차원의 지원방식으로 이루어 질 것이다.

이는 그동안 한국경제가 정부주도형 발전을 계속 해온 습성의 탈피를 요구한다. 즉 기존의 정부주도형 보호무역주의 형에서 탈피하여 국경없는 전쟁에서 기업이 앞장서서 돌파구를 열어 나가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동반자적인 관계, 중앙정부보다 더욱 많은 기여를 할 기관이 바로 지방정부이다. 지방정부는 타국의 정보망에서 일정정도 자유롭다. 중앙정부가 갖지 못한 이러한 특성을 지방정부가 포착하고 지원사업을 진행한다면 음으로 양으로 많은 실적을 올릴 것이다.

결국 세계체제의 변화는 무엇보다도 기업 스스로가 간접적인 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포장협회 등 각종 단체와 조합이 주축이 되어 포장업계 공동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업계 상호간 정보의 교환 및 기술교류는 물론 공동구매 및 수출 공동수주 등 공조체제의 구축에 노력하고 포장업계 공동의 협동단지 조성 및 교육연수, 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한 공동이익 실현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쓰레기종량제 실시이후 포장업계의 대책

-환경부 폐기물자원국장 정국현

월	시행전 평균 배출량(톤/일)	시행후 배출량(톤/일)	증가율(%)
1 월	53,301	34,109	36
2 월	53,546	33,709	37

(95.1.1~2.28)

시행전 배출량(톤)	시행후 배출량(톤)	증가량	증가율(%)
475,366	664,228	188,862	40

1. 폐기물 관리동향

산업혁명이후 급속한 경제개발과 인구증가 등 산업화, 도시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폐기물의 적정관리가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또한 포장폐기물의 관리문제는 무역과의 연계논의가 많은 분야로 GATT/WTO 및 OECD 등에서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폐기물관리 정책은 감량화, 재활용, 자원화, 소각 및 위생매립등 적정처리를 목표로 국가별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관리패턴도 전환되고 있다. 즉 폐기단계에서의 적정처리 개념이 생산단계부터 유통, 소비, 폐기단계에 이르는 전과정에 걸친 종합적 관리개념으로 바뀌었으며, 폐기물관리 정책이 생산단계로 까지 확대됨에 따라 생산자에 대한 의무부여사항이 증가되고 있으며, 그 관리대상은 거의 포장폐기물이다.

국내 포장폐기물 발생수준은 전체 쓰레기의 20.7%이며 이는 선진국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현재 소비패턴의 변화와 고급화 등으로 계속 증가일로에 있다. 또한 합성수지 포장폐기물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처리 문제가 심각하며 EPS사용량의 30%가 포장재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심각성은 더욱 크다.

2. 종량제 실시배경 및 그간의 성과

1)배경

종량제는 쓰레기배출량에 따라 그 처리비용을 부과함으로써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해야 할 책임(원인자부담원칙)을 지운다는 기본원칙에서 출발한 것으로 기존의 쓰레기 수수료는 그 양과 관계없이 건물분 재산세 또는 건물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어 쓰레기를 줄이려는 노력이 부족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인자부담원칙의 적용은 쓰레기를 버리는 양에 따라 필요한 만큼 규격봉투를 구입사용하여야 하므로 쓰레기발생이 줄게 되고 재활용품의 배출량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참고로 시범실시 경우와 같이 쓰레기발생량이 40%정도 감소된다면 쓰레기는 연간 약 9,189천톤 줄어들게 된다. 이는 쓰레기처리비용이 연간 약 4,063억원 정도 절감되고, 매립지도 연간 약 818천m²정도 절감되는 효과를 낳는 것이며, 절감되는 매립지 규모도 서울, 부산시민이 1년간 버리는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규모이다.

2) 종량제 실시후 성과

종량제 시행취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품 증가추세가 안정적으로